

과기원신문

THE KAIST TIMES /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 (042)869-2241,3 FAX 869-2245 / http://times.kaist.ac.kr

제189호

2000년 11월 22일 수요일 격주 발행

첨단 강의 시대 얼마나 남았나?

지난 98년 8월, 학리적 캠퍼스 운영을 위한 캠퍼스 장기 발전 계획 제시를 목적으로 제정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올해로 1단계 마지막 해를 맞았다. 2003년 완공되는 종합네트워크 강의동 건설과 관련해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대해 짚어본다.

5

15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비교

이번 15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두 팀의 후보가 나왔다. 4년만이다. 기호 1번 BBS선본과 기호 2번 한솔밥 선본. 두 선본 모두 전학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는 공통점이 있지만, BBS선본은 식당협의회 등 학내 복지문제에 중점을 둔 반면 한솔밥 선본은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학내자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6

예산 낭비 자초하는 문화 행정

7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서울 미디어_시티 전시회가 관객들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막을 내리면서 경쟁력 없는 문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좋은 작품과 현대식 시설, 풍부한 예산을 애써 유틀해놓고도 경험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무관심을 자초하는 각종 지역별 문화 이벤트,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0

“블랙홀은 검지않다?”

 수많은 논란속에 획기적인 학설들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된 스티븐 호킹. 그는 과연 블랙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블랙홀을 통한 시간여행은 가능한 것일까?

12

창간/ 1988년 2월 1일
발행인/ 최덕인 인쇄인/ 김규석
주간/ 김동원 편집장/ 오종훈

KAIST
과기원신문
The KAIST Times

총학선거, 4년만에 경선으로

28일 선거, 20일부터 선거전 돌입…오늘 밤 8시 매점서 공청회 열어

15대 총학생회장단선거 후보자등록 결과 이창렬·유지혜 학우(BBS선본)와 임재근·조석민 학우(한솔밥 선본)가 후보자로 등록함으로써 28일에 열리는 총학생회장 선거가 4년만에 두 후보간의 경선으로 치뤄지게 되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꾼다 함께 만드는 새로운 오늘'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등록한 이창렬·유지혜 학우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지금까지의 학생자치 단체를 평가하고 보다 올바른 자치단체로서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유팀은 과 대표자 협의회 같이 각 과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식당문제 해결이나 기숙사복지시설 확충과 같은 학생들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유 후보는 한총련과 관련해 "한총련은 총학생회의 연합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며 "한총련 탈퇴에 대한 전체학생 찬반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의 열걸음보다 이천오백의 한걸음'의 가치로 등록한 임재근·조석민 후보는 올바른 학내자치와 학생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주장했다. 임-조 후보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캠퍼스가 선거 열기로 화끈 달아올랐다. 사진은 두 선본의 선거유세장면.



할 계획이라고 한다.

18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두 후보는 20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늘 8시 매점에서는 선관위와 본사 주최의 공청회가 개최되며, 선거는 28일 학부 및 동·서측 식당, 우체국과 학부사이에서 치뤄진다.(관련기사 6면)

여길환 기자 yeokilay@kaist.ac.kr

학사과정 2차입시

원서교부 24일까지, 5일 면접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학교와 서울 캠퍼스, 한빛은행 지정점에서 학사과정 신입생 2차 모집 원서를 교부한다. 30일 까지 우리 학교와 서울 캠퍼스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5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차 모집은 서류심사와 면접, 제2 외국어를 제외한 수능 성적의 종합 평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모집 인원은 90명을 뽑은 작년보다 적은 50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2차 모집 합격자 중 상당수가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아 올해부터 1차 합격자 수를 100명 가량 늘리고 2차 합격자 수를 줄이게 되었다.

2000학년도 2차 모집에서는 90명 모집 예정에 111명의 합격자를 선발했었고 경쟁률은 약 4:1이었다. 합격자 평균 수능 점수는 385점이었는데 올해 모집에서는 선발 인원이 줄어 합격자 평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모집은 내년 2월에 원서 교부 및 접수를 해서 3월에 선발한다.

학교 홈페이지(www.kaist.ac.kr)에서 입학전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원서 교부와 접수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 달 5일 면접시 예비소집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손은영 기자 geniwon@kaist.ac.kr

기획특집
마른 토론 문화 찾아나서기
현재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토론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올바른 토론 문화 정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8